

옛말 사전의 의의와 과제

- 언간 어휘 사전의 체재를 중심으로

신성철(한국학중앙연구원)*

〈목 차〉

1. 머리말
2. 어휘 사전이란
3. 기존 고어사전 체재
4. 어휘 사전 집필 방안
5. 결론

1. 머리말

편지는 일상생활이 잘 반영된, 문어적 매체의 성격을 띤 의사소통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작성된 편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발굴된 조선시대 한글 편지¹⁾에도 주로 기후, 건강, 의식주 등 사람들의 일상적인 관심사와 함께 발·

*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의 2009년 제1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고친 것이다. 당시 토론으로 참여한 오광근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심사를 맡아 내용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 '조선시대 한글편지'는 '언간(諺簡)'으로도 지칭된다. '조선시대 한글편지' 또는 '언간'은 김일근(1986)에서 정의한 좁은 의미의 언간을 가리키며, 두 용어가 가리키는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단지, '조선시대 한글편지'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도록 한 것이라면, '언간'은 흔히 학술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온 것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되, 본문에서는 '언간'을 주로 사용한다.

수신자의 주변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인간의 작성 시기, 지역 등에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조선시대 한글편지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로서 위로는 왕과 왕비로부터 아래로는 한글 해득(解得) 능력을 갖춘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실용되었으며(김일근 1986, 백두현 2001:201~7, 황문환 2005:69~7), 대부분이 인친척(仁親戚) 간에 작성되어 당시의 개인이나 사회의 일상적인 생활상이 생생하게 투영되어 있다.²⁾

언간은 기존의 간본 자료로는 자세하지 않았던 경어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거나³⁾ 대부분 한문 원본을 번역한 언해본과는 달리 자연스러운 국어 문장이 나타난다거나⁴⁾ 일상 어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⁵⁾ 등으로 인하여 국어사의 중요한 자료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어로 된 난해한 어구나 구절이 많아 일부 극소수의 전공자 외에는 판독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황문환 2005:67).

더욱이 인간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고어사전은 기초적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고어사전류가 언해 위주의 간본 자료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언간 속에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어휘를 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어사전류의 간략한 뜻풀이로는 언간에 나타난 어휘의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秋史 한글편지』에는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사용하는 이인칭 대명사로 ‘게서’가 사용되고 있는데⁶⁾, 고어사전류에서는 ‘게 [체] 거기에.’(『이조어사전』(유창돈 1964)), 또는 ‘게 [대] 거기. 거기에.;게서 [대] 게서. 거기에서.’(『교학 고어사전』(남광우

2) 예를 들어,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이나 「추사 한글편지」 등에서는 대부분의 편지에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질병이 주관심사로 등장한다. 김일근(1986)에서는 ‘안부, 정찰(情札), 익명서(匿名書), 밀서(密書)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실제 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실록」 등에 나타난 기록을 종합한 것이다. 「순원왕후 언간」 등에는 정치를 주된 내용으로 작성된 편지도 있으나 이러한 편지는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안귀남(1996)에서는 16~19세기의 언간에 나타난 경어법을, 황문환(2002a)에서는 16,17세기의 언간에 나타난 상대경어법을 다루고 있다.

4) 황문환(2005:81)에서 언간 자료의 속성을 밝히고 있다.

5) 백두현(1997), 황문환(2002b) 등에서 생활사를 다루고 있다.

6) 집안 일이 즉금은 더고 게서씨 다 달여시니 응당 그런 도리는 알으시려이와(집안 일이 지금은 더구나 부인에게 다 달렸으니 마땅히 그런 도리는 아시려니와)<추사언간-20,1840,남편→아내>

1997)), ‘개 [명] 거기’(『17세기 국어사전』(정신문화연구원 1995))에 작성된 뜻풀이와 용례만으로는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사용하는 이인칭 대명사로 해석할 정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어휘 사전의 제작에 있어서, 기존의 고어사전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어휘를 담고 있는 인간 본연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는 어휘 사전의 의의와 과제를 밝혀 보고자 한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현대 국어대사전의 체제와 비교·검토하면서 앞으로 편찬될 옛말 사전들이 현대 국어대사전의 체제와 유사해야 할 타당성을 찾고자 한다.

2. 어휘 사전이란⁷⁾

조선시대 한글편지, 즉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인간은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형성된다. 인간의 사연 속에는 당시 개인이나 사회의 실상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문, 교육, 민속, 사회, 경제, 의약 등 각 분야에서 당시의 생생한 실생활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으며(황문환 2005:82), 실생활에서 사용된 어휘가 간본 자료보다 풍부히 발견된다.

이렇게 실생활 정보가 잘 반영된 조선시대 한글편지를 바탕으로 어휘 사전을 만든다면 일상생활의 다양한 어휘가 담길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 사전’이라는 것이 ‘인간 자료’에 나타난 어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렇다면 어떠한 사전으로 편찬할 것인가는 그 변수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고려된 바가 없다.

2.1. 기존의 고어사전

기존의 고어사전류에서는 공식적 측면이 확인된다. 『교학 고어사전』, 『이조어사전』, 『우리말근사전』 등은 주로 15·6세기 국어를 중심으로 표제어를 수

7) ‘어휘 사전’은 다른 말로 ‘용례 사전’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의 ‘인간 어휘 사전’은 ‘인간 용례 사전’이 아니다. ‘인간 어휘 사전’이 기존의 용례 사전과 동일한 형태의 사전이라면, 본고의 논의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진다. 달리 말하자면, 기존 고어사전의 체제처럼 뜻풀이에 대응하는 현대어 등을, 용례에는 해당 표제어의 용례와 용례가 사용된 출전만을 나열한다면, 사전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언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검토하는 본고는 불필요하다.

록하였고, 『17세기 어휘 사전』은 17세기에 간행된 문헌 자료에 나타난 국어 어휘 수록하였으며, 『고어스던』은 18,9세기의 낙선재본 소설 등의 고소설 문헌을 중심으로 국어 어휘를 수록하고 있다. 『이조어사전』(유창돈 1964), 『우리말 큰사전: 4 옛말과 이두』(한글학회 1992), 『교학 고어사전』(남광우 편 1997) 등이 대표적인 고어사전이지만 이러한 사전류들은 언해 위주의 간본 자료를 중심으로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필사본 고전 소설을 중심으로 편찬한 것이 『고어스던』(박재연 2001)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번역물의 소산인 필사본 소설류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실제 사용한 어휘를 풍부하게 담고 있지는 못하다.⁸⁾

또한 이들 옛말 사전은 각 시기의 자료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표제어들은 현대국어의 관련 어휘만으로 대응시켜 뜻풀이를 하고 있어, 현대국어와의 관련성만을 제시할 뿐이다. 그리고 용례는 대략 시기적 순서에 따라 배열될 뿐 어떤 원칙을 발견할 수 없으며, 현대국어의 음운론적 정보, 형태론적 정보나 통사론적 정보, 의미론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용례의 선정과 배열 등이 제시되지 않다.⁹⁾ 뜻풀이 부분에 대응하는 현대국어를 제시하고, 용례는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어떤 선별 원칙이 없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현대국어와 연계하여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2.2. 특수사전인가

기존의 고어사전류는 일반적인 국어사전을 보충하는 특수사전으로의 특성과 용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고어사전류에 일반 국어사전에서 수용하기 힘든 고어 어휘와 그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다는데서 그 일면이 확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굳이 고어사전류가 일반 국어사전과 구별되는 특성과 용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 ‘고어사전은 일반 국어사전의 특성과 용도로 편찬할 수 없는 것인가?’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8) 『고어스던』에서는 ‘계셔’와 관련된 ‘거괴, 계, 계셔’ 등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데, 이러한 한계를 여실히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이현희(2005:58~9)에서는 15세기 국어 동사 ‘너지다’를 표제항을 기준으로 용례 배열 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은 크게 일반 국어사전과 특수사전을 나누고 있다. 최경봉(2008:62)에서는 특수사전의 편찬 목적을 일반 국어사전과의 차별화라는 관점에서 규정하면서, 그 편찬 목적을 첫째, 일반 국어사전에서 수록하기 힘든 정보를 자세하게 수록하기 위함이고, 둘째, 이해를 위한 편찬되는 일반 국어사전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갖추기 위함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현대국어를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반 사전에서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 국어 정보를 자세하고 풍부하게 수록한 특정 영역의 정보를 특화한 사전이 바로 특수사전인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언급된 언어는 현대국어라는 공식적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생활을 쉽고도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 사전과 특수 사전인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옛말 사전도 공식적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생활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특수사전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¹⁰⁾ 그러나 고어사전류가 다루고 있는 공식적 언어는 현대국어의 언어가 될 수 없다. 물론 고어를 연구하는 시기가 현대라는 관점은 고려되어야 하지만, 기존의 고어사전류처럼 현대국어와의 연관성만을 고려하여 뜻풀이에 현대국어의 대응 어휘를 일대일로 풀이하는 것은 고어(古語) 어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한 차례 더 현대국어의 국어사전을 펼쳐 봐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고어(古語)를 표제어로 하는 일반적인 국어사전과 같은 소위 ‘일반 옛말사전’은 왜 존재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3. 일반 국어사전인가

이병근(1990)에서 ‘이용자 중심의 사전’과 ‘편찬자 중심의 사전’을 언급한 이래로 사전 편찬에서 사전 이용자에 대한 고려는 중요한 준거로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사전 이용자를 옛말을 연구하는 전문 집단에 충실한 사전을 만들 것인가

10)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언간 어휘 사전’은 기존의 고어사전과 같은 특수사전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고어사전의 체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이전경 외(2006)와 같이 고어의 특수사전에 대한 연구가 몇몇 있지만, 일반 국어사전의 성격을 지닌 옛말 사전의 체제에 대하여, 달리 말하자면 거시적, 미시적 구조를 검토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그리고 대체로 사전 집필은 이왕에 연구된 성과물을 총정리하는 작업의 성격을 지니지, 국어 연구를 선행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옛말에 대한 일반 국어사전의 편찬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 아니면 일반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전을 만들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독자의 수준을 어떻게 상정할 것인지도 사전 편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이다.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 사전이 편찬을 전문적인 사전으로서 그 편찬 목적을 수립한다면, 기존의 고어사전류의 체제에 따르되,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 충분히 나타난 수 있도록 수정하여 편찬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옛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옛말대사전류’의 편찬을 고려한다면, 현대국어의 일반 국어사전처럼 일반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제와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국어사전에 구성 체제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체제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 사전’의 체제와 구성, 그리고 편찬 과정을 비교하면 논의를 이끌고자 한다.

3. 기존 고어사전 체제

기존 고어사전류에서 체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계셔’와 ‘잡습다’ 항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열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유창돈 저, 『이조어사전』(연세대학교출판부, 1964)

계 [체] 거기에. * 굳디 아니흔게 구든 뜬들 머그샤 <月十 9> 呑은 글 업슨게 드논디 아니라(呑은 非入無端이라) <능六 57> 비흠업슨 계 비흐논 사 르미라(學於無學者也) <法化一 34> 계 가 문 나시리라 <月二 11> 傷흔 계 神驗흔 方이니 <救方下 30> 계 니르러 간 나래 <杜초八 60> 모든 계 特出흐도다 <杜초十五 36> 本來 迷惑흔 계 늘거 病흐야 <三강忠 8> 시울 업슨 계(無絃예) <金삼三 6> 흔 계 三卷을 써 <觀音 9> 계 가 <번小十 12> 엇데 모든 계 다르리오 <杜重十七 35> 더 중아 계 잇거라 <松江二 16> 너와 계 가 놀리라 <靑 p.62> 善흔 계는 절흐시고 <月十七 74> 계나 예나 흔가지옵도셔 <新語四 29> 위시를 계다가 밀티 니 <太平一 4> 다만 계만 도흐니(只除那裏好) <老上 10> 太子를 나흔 계셔 달아 아니터라 <석十一 35> 계셔 분토에 제 흐시고 <朴초소 65> 잡습다 [동] 잡수시다. * 흔번식도 아니 잡스오면 <癸丑p.110> 一杯만 잡습 소 <新語二 7>

이 사전의 뜻풀이 부분에는 풀이로 현대국어의 단어를 대응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현대의 국어사전¹¹⁾에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은 어형이며 ‘잡수시다’는 “‘잡수다’의 높임말”로 처리되어 있다. ‘거기에’는 ‘거기’라는 대명사와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된 것이므로, 만약 현대국어의 단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현대국어의 ‘게’가 그대로 대응되어야 한다. 또한 ‘잡습다’에 대응되는 현대국어는 ‘잡수다’이므로, ‘잡수다’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잡습다’에 대응시키려면 ‘잡수시다’가 ‘잡수다’의 높임말이 아니라는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¹²⁾ 용례 부분의 배열 순서에 대해서는 일견으로는 어떤 원칙이 제시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용례의 어형이나 용례의 해당 문헌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게’의 단독형을 먼저 시기별로 15세기부터 18세기 문헌의 용례로 배치하고, 그 뒤에 조사의 ‘가나다 순’과 시기라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사용하여 배치하고 있음을 어렵게 파악할 수 있다.

(2) 남광우 편저, 『교학 고어사전』(교학사, 1997)

게 [대] 거기. 거기에. ㉠ 게 가 못 나시리라(月釋2:11). 게 니르러 간 나라:到日(初杜解 8:60). 다만 게만 도흐나:只除那裏好(翻老上11). 이튿날 드디어 게서 분토에 제호시고:明日就那裏上了墳(翻朴上65). 아히들히 깃 마를 아는다 닐오미니라(重杜解10:33). 다만 게만 도흐나:只除那裏好(老解上10). 게나 예나 혼가지옵도쇠(新語4:29). 위시를 게다가 밀티니(太平1:4). 우리란 이지 가을 거시니 게 일을 수이 출이옵소(重新語2:26).
게서 [대] 게서. 거기에서. ㉡ 죽재 게서 버리고 도망커늘:就那裏撇下走了(翻老上28).

잡습다 [동] ① 입으시다. ㉢ 담제 후의 잡스오실 복식을(仁祖行狀9). ② 타시다. ㉣ 저근 교즈를 잡스와시이다 청호더(仁祖行狀10). ③ 혼 번식도 아니 잡스오면(癸丑110). 이 一杯만 잡스소(新語2:7).

11) 앞에서 언급한 대로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의 체제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특별한 설명 없이 사용되는 ‘국어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를 가리키는 것이다.

12) (1) 등에 실린 ‘잡습다’의 용례를 현대국어로 바꾸면 ‘잡수다’와 ‘잡수시다’에 대응된다. 그러므로 의미상으로도 보면 ‘잡수다’나 ‘잡수시다’에 대응되는 옛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음운이나 형태를 포함하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잡습다’와 ‘잡수다’의 대응에서는 음운과 형태 변화를 자연스럽게 설명되나 ‘잡습다’와 ‘잡수시다’는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서는 의미뿐만 아니라, 음운과 형태도 함께 감안하여 ‘잡수다’에 대응시킨다. 자세한 것은 후고를 기약한다.

이 사전에서는 뜻풀이 부분에 현대국어의 ‘거기’와 ‘거기에’를 대응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도 현대국어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게’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시된 용례는 ‘게’의 어형에 상관없이 시기별로 나열하고 있다.

이 사전은 제시된 용례가 (1)의 것보다 적고 그 형태도 다양하지 못하다. 또한 ‘게서’를 개별 표제어로 처리하고 있는데, 제시된 용례를 검토해 보았을 때, 새로운 의미를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리고 ‘잡습다’는 새로운 용례를 제시하면서 ‘입으시다’와 ‘타시다’의 의미를 새롭게 추가하였는데, 다의어가 아닌 동음이의어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7세기 국어사전』(태학사, 1995)

게 [명] 거기 ⇨ 거긔 **【게】** 게 가 방이 맞당흔가 못 맞당흔가 보고야<老乞上:61a> 게 가서 茶를 자습시고<捷解初66a> 게 니거든 더 벗으로 햏여 오게 햏라<老乞上:52a> 우리는 이제 나올 써시니 게 일을 수이 출히읍 소<捷解初2:19b> 햏 도적을 만나 게 와 보고<老乞上:25a> **【게나】** 萬事 ㅁ옴대로 못햏여 되츄디 못햏는 바는 게나 예나 햏가지읍도쇠<捷解初4:29a> **【게다가】** 들햏로 햏야 몰 모라 게다가 노햏라 가라<老乞上:50b> **【게만】** 다만 게만 도햏니<老乞上:10a> **【게서】** 그러커니와 게서 햏뻬 이런 道理를 東萊의 햏즈와<捷解初1:32a> 또 조햏매 즉제 게서 ㅁ墳햏고<朴通上:57a> 즉제 게서 (就那裏)<語錄重:32b> 즉제 게서 햏 덩이 큰 돌햏 가져다가<老乞上:25a> **【게서도】** 그러면 게서도 日 吉利 이실 듯햏다<捷解初5:14b>

잡습다 [타] 잡수시다. 드시다 ⇨ 잡습다

【잡습소】 이 一杯만 잡습소<捷解初2:7a>

잡습다 [타] 잡수시다. 드시다 ⇨ 잡습다

【잡소오니】 어미 병들거늘 손 네 가락을 그쳐 잡소오니<東新孝4:41b> **【잡소오매】** 도석의 던믈을 잡소오매 피 나게 울기틀 처업 ㅁ터 햏고<東新烈2:36b>

이 사전은 17세기 국어의 문헌 자료에 나타난 어휘를 표제어로 선정한 것이다. 특히 이 사전은 말뭉치로 입력한 전자 자료를 어절 단위로 배열하여 표제어를 선정하였고, 용례도 또한 이러한 전자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제공한

점과 말뭉치를 통한 어휘 기술이 직관에 의한 어휘 기술과 달리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장점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자료에 나타난 언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지 못하였고, 뜻풀이와 문법 정보 등의 관련 어휘 정보를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¹³⁾

이 사전에서도 ‘계’는 현대국어의 ‘계’가 아니라 줄어들기 이전의 ‘거기’로 대응시키고 있다. ‘잡습다’를 제시하고 있어 ‘잡습다’의 이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점에서 표제어 선정에서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우월하나, 뜻풀이에서는 앞의 두 고어사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말뭉치 자료로서의 효용성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잡습다’를 ‘잡수다’의 높임말인 ‘잡수시다’에 대응하여 제시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이 과정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박재연, 『고어스던』(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1)

계, 잡습다 → 표제항 없음.

이 사전에서는 한문본의 번역본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계, 잡습다’ 등의 표제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언해 자료가 번역의 속성상 원문(주로 한문)의 간섭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자료이기 때문이다(황문환 2005:81).

이 사전도 (3)의 사전과 같이 말뭉치를 이용하여 사전을 편찬하여, 표제어 선정과 용례의 선별 등으로 다양성의 측면에서 장점을 보이지만, 결국 실제 자료에 나타난 언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뜻풀이와 문법 정보 등의 관련 어휘 정보를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13) 남길임(2005:86~90)에서 말뭉치 활용 사전 편찬의 효용성과 지향 방향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효용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4. 어휘 사전 집필 방안

4.1. 연구 개괄

언간 자료 중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뿐만 아니라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특히 문헌 문치 속에서 개별적으로 한두 건씩 발견되거나 어떤 자료인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무조건적으로 고문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집되었거나, 또는 수집된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언간 자료는 그 서지 사항을 알기 어렵다. 이처럼 발수신자뿐 아니라 작성시기 등을 찾을 수 없는 언간들은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 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기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언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5) 대상 언간

- ① 조선시대 16~19세기의 언간
- ② 발신자와 수신자 및 작성 시기가 분명한 편지
- ③ 첩(帖)으로 전하거나 하여 원본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지
- ④ 편지 원본이나 원본의 사진 및 영인 자료가 남아 있어 판독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편지

현재 수집된 언간 자료는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189건,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 164건, ‘先札’ 소재 언간 128건, 이동표가 언간 38건, ‘先世諺讀’ 소재 언간 39건, 추사언간 40건, 송준길 후손가 언간 100건, 명성왕후 언간 135건, 순원왕 후봉서,어필 소재 언간 58건, 송병필 후손가 언간 91건, 봉서 소재 언간 40건, 의성김씨 종택 언간 167건 등을 확보하였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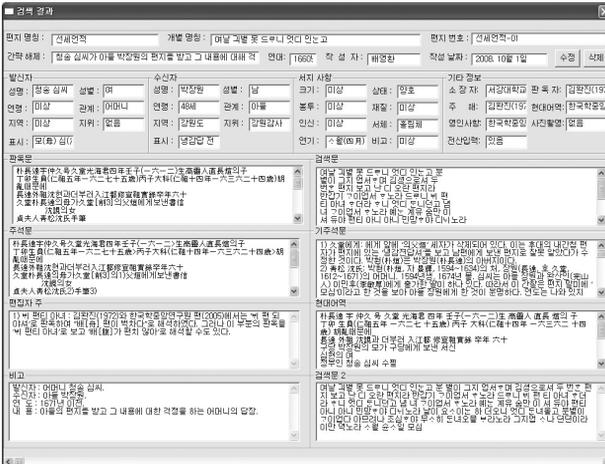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편지명, 연대, 발수신자, 소장처, 서지사항, 판독/역주

14) 조선시대 언간 자료 일람은 황문환(2005)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부록의 일람표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만을 언급한다면, 우선 이동표 언간과 명성왕후 언간에서 보이는 건수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새롭게 ‘봉서 소재 언간 40건, 의성김씨 종택 언간 167건’ 등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셋째, ‘언간의 연구’ 수록 언간과 ‘근조내간선’ 수록 언간은 정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른 자료 속에 포함된 언간과 중복된 경우가 많았고, 자료 소실 등의 이유로 원문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사항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면서, 원본 확보 여부, 서지사항, 판독문, 주석문, 현대역 등의 작업을 진행하여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 “훈글”의 특정 입력 양식을 정하여 입력한다. 그리고 이 입력 파일을 DB로 구축한다.



<그림 1> DB 구축 프로그램 예



<그림 2> 입력 완료 예

4.2. 표제어 선정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 사전은 16세기부터 19세기의 현실 언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표제어 선정에서부터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등의 집필이 말뭉치(corpus)에서 추출한 언어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말뭉치 구축이 끝나면 말뭉치로부터 어휘 빈도 자료를 추출해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표제어 목록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말뭉치를 통하면 기존의 고어사전류의 표제어 없는 일상 어휘와 이형태의 어휘들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기존의 사전에서는 ‘게’형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인간에는 ‘게’뿐만 아니라 ‘개’형, ‘거’형이 함께 나타난다. 조사와의 결합형에서도 ‘개’형은 ‘개셔, 개셔는, 개셔도’, ‘거’형은 ‘거셔, 거셔는, 거셔도’, ‘게’형은 ‘게, 게가, 게ㄴ다, 게나, 게는, 게다, 게도, 게로, 게를, 게셔, 게셔가, 게셔나, 게셔는, 게셔도, 게셔만, 게셔웃, 게셔씨, 겿’ 등이 검색된다. ‘게’에서는 단독형이 나타나지만, ‘개’형과 ‘거’형은 항상 ‘-셔’와의 결합형으로만 확인된다. 특히 ‘개’형과 ‘거’형은 추사 인간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어형이다.

그러므로 추사 인간의 작성자인 추사(秋史) 김정희의 개인 방언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작성자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 방언이 반영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개’형과 ‘거’형도 표제어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용자 중심의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혼란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어휘 정보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형과 ‘거’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일반인들은 ‘개’형과 ‘거’형의 의미와 문법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단어가 사용된 문맥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에 나타난 모든 어형을 표제어로 올리는 방법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나타나는 어형을 모두 올린다는 것은 그 분량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발견된 인간 중에서 700여 건의 인간만을 대상으로 어형의 개수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어절별로 검색한 어형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6) 표제어 검토

① 검토 연간: 700여 건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189건, 이응태묘 출토 연간 1건, 진주하씨묘 출토 연간 146건, 우암송시열 연간 1건, 이동표가 연간 37건, 총암공수목내간 소재 연간 7건, 선세연독 소재 연간 39건, 선세연독 소재 연재 20건, 월성 이씨 연간 3건, 명암공주 어필 소재 연간 20건, 조선어필 수록 연간 16건, 자손보전 소재 연간 20건, 순원왕후어필뫼봉서 37건, 송준길 후손가 연간 77건, 추사 연간 34건, 순명효황후 연간 11건 등

② 전체 어절 수(=단어 수) : 67,800여 개

③ 어절(=단어) 종류 수: 23,200여 개

『17세기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제어 27,716개와 『고어스던』에 등재된 11,695개와 비교해 봐도 적지 않은 숫자이다. 앞으로 추가될 650여 건의 편지를 감안한다면 그 숫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대략적인 증가폭을 추정하기 위하여 700여 건의 절반인 350여 건만을 검토 대상으로 삼아 다시 어절 수의 통계를 내보면, 전체 어절 수가 36,000여 개이며, 단어 종류가 12,500여 개로 절반 정도 줄어들고 있다. 650여 건에 이러한 증가폭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비록 산출되는 표제어의 숫자는 정배수로 늘지 않을 것이지만, 기존의 옛말 사전에 대등한 양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어형을 표제어로 올린다는 논의는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표제어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기준 설정을 위해 실제로 검색한 어형을 대상으로 표제어를 선정해 보았다. 3장에서 예로 든 ‘게서’와 ‘잡습다’의 경우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게’형과 ‘개’형, ‘거’형을 먼저 살펴본다. 우선 ‘게’형은 ‘게’가 단독으로 쓰이기 때문에 ‘게’를 표제어로 올리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그리고 나머지 ‘게’형의 용례는 조사와의 결합형이기 때문에 용례 부분에서 그 형태를 제시하면 된다. 문제는 ‘개’형과 ‘거’형이다. ‘개’형과 ‘거’형은 단독으로 쓰이는 용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서’와의 결합형으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해결책으로 ‘개’와 ‘거’는 표제어로 올리지 않고, ‘개서’와 ‘기서’를 표제어로 올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품사 정보는 주어지지 않아야 하며, 꼭 관련 어형항에서 ‘게’형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지만 일반인들이 ‘게’형과의 연관성

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秋史 한글편지」에서만 나타나는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사용하는 이인칭 대명사로 ‘게셔’도 또한 개별 표제어로 제시되어야 한다. 「秋史 한글편지」에서는 ‘게셔’가 단독형과 함께 ‘게셔가, 게셔씨, 게셔웃’ 등의 어형이 나타난다. ‘게셔가’와 ‘게셔씨’는 각각 주격조사 ‘가’, ‘께’가 결합한 것이며, ‘게셔웃’의 ‘웃’은 주로 체언류에 붙여 앞말을 강조하는 침사가 결합된 것으로 이때의 ‘게셔’는 체언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秋史 한글편지」에서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2인칭 대명사로써의 ‘게셔’로 판단된다.

‘잡습다’는 두 가지의 어형이 검색되는데, ‘잡소오-’형과 ‘잡습-’형이 바로 그것이다. ‘잡소오-’형은 ‘잡소오려흐읍, 잡소오며, 잡소오셔, 잡소오쇼셔, 잡소오시개흐읍, 잡소오시게, 잡소오시고, 잡소오시니, 잡소오시느니잇가, 잡소오실, 잡소울, 잡소와, 잡소왓즉흔’의 형태로 나타나고, ‘잡습-’형은 ‘잡습거늘, 잡습게, 잡습고, 잡습던, 잡습께’로 나타난다.

‘잡소오-’형과 ‘잡습-’형은 ‘잡습-’형으로 통일하여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현대 국어사전이나 일부 고어사전에서 채용한 방법이지만 ‘잡소오-’형에서 ‘잡습-’형, 그리고 그 반대로 ‘잡습-’형에서 ‘잡소오-’를 상정하거란 일반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표제어를 선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두 형태를 모두 표제어로 올리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알고자 하는 어형으로 쉽게 그 단어의 의미와 어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련 어형 항에 두 어형의 관련 정보를 첨부하면 두 어형이 별개가 아님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의 표제어 선정 방법에 대해, 기존의 고어사전류에서는 그 수용 방법이 각각 다르다. 『17세기 국어사전』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고어스던』은 후자에 해당한다. 『고어스던』에서 두 형태를 모두 표제어로 올리면서 두 형태의 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형을 제시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두 형태가 동일한 어형에 나타난 것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쉽게 필요한 어형을 검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3. 표제어의 형태 정보 및 원어 정보, 표제어 배열 등

표제어의 형태 정보는 고어(古語)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형태소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일반인들이 국어사 문헌 자료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바로 형태소 분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표제어가 복합어인 경우에는 형태 분석 정보를 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형태 정보는 표제어 항목에서 하지 않고, 한자어인 경우 한자 정보를 첨부하는 원어 정보 항을 함께 사용한다. 즉 한자어인 경우에는 한자를 그대로 원어 정보 항에 첨부하고, 고유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형태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표제어 배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듯하다. 첫째는 ‘① 고유어→한자어, ② 중양어→방언, ③ 품사 *어휘 형태 : 자립 명사→의존 명사→대명사(인칭 대명사→지시 대명사)→수사→동사(자동사[일반 자동사→피동사]→타동사→일반 타동사→사동사)→형용사→보조 용언(보조 동사→보조 형용사)→관형사→부사→감탄사 ④ 일반어→전문어’의 순서를 따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¹⁵⁾. 둘째로는 말뭉치 기반 사전 편찬의 특징을 살려, 동음이의어를 ‘빈도수’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이다. 빈도수가 비슷하다면 현대 국어 사전의 ‘고유어→한자어’ 등의 순서를 따르면 된다.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 사전’은 말뭉치로 표제어를 선별하고 용례를 제시하기 때문에 일견 빈도수로 표제어를 배열하는 것이 사전 이용자의 사용 빈도나 인지도 면에서 더 낫은 면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빈도수보다는 현대 국어사전과의 연계성을 제공하는 것이 고어(古語)를 이해하는데 더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대 국어사전의 배열 순서를 따른다. 대신, 표제어가 언간에서 얼마만의 빈도로 사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표제어의 빈도수를 관련 어형 항에 등에 제공한다.

4.4. 문형 정보 및 뜻풀이

문형 정보는 기존의 고어사전류에서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정보이다. 언간에 나타난 문형 정보가 현대국어와는 문형 정보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

15)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의 일러두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다. 이현희(2005:69~75)에서도 15세기 국어 동사 ‘너지다’가 현대 국어 ‘여기다’보다 훨씬 다양한 구문 유형이 나타남을 보이고 있는데, 근대국어도 현대 국어와는 차이점이 있을 것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문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형 정보의 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7) 문형 정보 원칙¹⁶⁾

- ① 주어를 제외한 용언의 필수적 성분만을 제시한다. 주어에서 나타나는 통사·의미론적 제약은 문법 정보로 제시한다.
- ② 용언의 문형 정보와 관련된 필수적 성분은 ‘…을’, ‘…으로’ 따위의 격조사나, ‘-게, -음, -기’ 따위의 어미만 표시한다.
- ③ 용례를 거의 찾을 수 없거나 용례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세한 문형 정보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문형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다.

기존의 고어사전류에서는 뜻풀이를 첫째, ‘대응하는 현대어를 제시’하고 둘째, 이것만으로 부족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 ‘설명적 뜻풀이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 사전’에서는 직접 그 뜻풀이를 적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대어로 제시된 뜻풀이는 그 현대어의 정확한 뜻풀이를 위하여 현대 국어사전을 펼쳐 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용자 중심의 사전’이란 이러한 번거로움이 없는 사전일 것이며, 그러므로 모든 표제어에 완전한 뜻풀이를 제시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뜻풀이의 기본 원칙으로, 첫째, 백과사전이 아닌 언어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짧고 간결하게 뜻풀이를 하는 것이고, 둘째, 뜻풀이는 ‘정의항’만 한다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지침을 따르고자 한다. 뜻풀이는 현대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검색된 용례와 대비하여 검토해 보고 조금이라도 의미 등이 달라졌다면 뜻풀이를 수정한다.

현대 국어사전에서 ‘적다’를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자세한 원칙은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의 일러두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8) 현대 국어사전¹⁷⁾의 ‘적다’

적다01[-따] [적어, 적으니, 적는[정-]] 「동」 「1」 【…에 …을】 【…에 -음을】 【…에 -기를】 【…에 -고】 어떤 내용을 글로 쓰다. ¶ 답안지에 답을 적다/전화번호를 수첩에 적다/그녀는 메모지 위에 이름 하나를 적어 내게 넘겼다. || 범인은 이제 마음을 굳혔는지 자신이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음을 진술서에 적어서 형사에게 넘겨주었다. || 선생님은 나눠 준 종이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셨다. || 삼천동 몇 번지 아무개라고 적어 준, 종이쪽을 손에 들고, 오 서방은 영호 남매와 함께 대학 병원 옆의 전재민 원호소를 나섰다. <<채만식, 소년은 자란다>> 「2」 【…을】 장부나 일기 따위를 작성하다. ¶ 아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계부를 적는다./학교에서 돌아와 보면 아버지는 언제나 조그만 책상에 앉아서 장부를 꼼꼼하게 적고 계셨다.

‘적다’의 고어(古語)인 ‘덕다’를 언간 자료에서 검색하면 현대 국어사전의 다의어가 모두 확인된다. 즉 ‘어떤 내용을 글로 쓰다’와 ‘장부나 일기 따위를 작성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용례가 모두 나타난다. 기존의 고어사전류처럼 ‘덕다’의 뜻을풀이를 현대어로 대응하는 ‘적다’¹⁸⁾ 또는 ‘기록하다’¹⁹⁾를 제시하지 말고 현대 국어사전의 뜻을풀이를 참고로 하여 뜻을풀이를 부분을 작성한다.

(9) ‘덕다’의 작성

덕다 01 「동」 「1」 【…에 …을】 【…에 -음을】 【…에 -기를】 어떤 내용을 글로 쓰다.

【덕스오리잇가】 그 후 소식을 모르오니 답답 넘녀를 어이 다 {덕스오리잇가} <선세연적-07/1680년대/남양홍씨(여/30대/아내)→박성한(남/30대/남편)> 【덕습】 등속도 굵굵 민망호오몰 어이 다 {덕습} <선세연적-07/1680년대/남양홍씨(여/30대/아내)→박성한(남/30대/남편)> 【덕어】 구가의 집의셔도 스듀톨 {덕어} 가시되 당시 회뵈업스니 어이 흐논디 몰라 흐노라 <송준길가-001-2/1667/백천조씨(여/43세/어머니)→송병하(남/22세/아들)> 【덕오리】 상스도 하 의외니

17)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에서 인용한다.
18) 『이조어사전』, 『교학 고어사전』, 『17세기 국어사전』에서 그러하다.
19) 『17세기 국어사전』에서 ‘적다’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날포 될수록 참혹하기를 어이 다 {덕으리} <송준길가-029/1754/송요하(남/72살/시아버지)→여흥민씨(여/며느리)>

「2」 【…을】 편지나 일기 따위를 작성하다. 【덕고】 편지나 {덕고} 전위하여 종을 브리러 흐엿더니 <자손보전-16/1774년/미상(여/고모)→서명천(남/조카)> 【덕으며】 문안 하인 간다가 잠 {덕으며} 므스히 쉬이 오기 기다리니 <선세언적-21/1803년 이전/연산서씨(여/어머니)→박종순(남/아들)>

4.5. 용례

다양한 용례를 제시하는 것은 표제어의 용법을 이해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더욱이 직관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는 고어(古語)의 경우에는 그 용법을 다양하게 제시해야지만 표제어의 올바른 용법과 다양한 언어 관계를 이용자가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용례는 사전 편찬에 있어서는 뜻풀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하는 용례의 분석을 통하여 표제어와 의미와 기능이 뜻풀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집약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한영균 2006:290), 이러한 측면에서 뜻풀이보다 용례가 더 중시될 필요가 한다. 그러나 인간 자료가 당시의 언어생활 전부를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자료만으로 뜻풀이를 작성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더욱이 첫째, 조선시대 16~19세기의 인간, 둘째, 발신자와 수신자 및 작성 시기가 분명한 편지, 셋째, 첩(帖)으로 전하거나 하여 원본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지, 넷째, 편지 원본이나 원본의 사진 및 영인 자료가 남아 있어 판독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편지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인간을 수집·정리한 결과 1,350여 개의 인간을 수집하였지만, 이 자료가 당시의 언어생활을 충분히 보인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첫째 조건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간은 동일한 시기의 자료가 아니라 16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진 자료이다. 16세기 자료는 ‘순천김씨묘 묘 출토 인간과 몇몇 인간을 포함하더라도 200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 자료만으로 16세기의 언어생활을 충분히 반영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수집·정리한 16세기의 인간에 16세기의 모든 문헌 자료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결코 당시의 언어생활을 나타내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미비점을 지닌 채 인간을 대상으로 어휘 사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어사전류나 현대의 국어사전류 등을 보충 자료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 국어의 말뭉치를 아무리 엄청난 숫자의 규모로 구축하더라도 그 자체가 현대 국어의 언어생활에 100%에 근접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인데, 현대 국어가 아닌 고어(古語)에서는 더욱이 당시의 언어생활에 근접한 자료를 구축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당시의 언어생활을 만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인간 자료가 지니고 있는 자연스러운 국어 문장이 나타난다거나 일상 어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고어사전류에서 보이지 못한 용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용례 제시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의하여 제시된다. 첫째, 곡용형이나 활용형에 따라 별도로 용례를 배열하며, 둘째, 배열 순서는 가능한 한 시대순이 되도록 하고, 셋째, 출전은 <한글편지명/연대/발신자명(성별/연령/관계/신분/지역)→수신자명(성별/연령/관계/신분/지역)>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인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사회언어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글편지명’은 자료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연대’는 자료의 시대 구분을 밝혀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밝히기 위하여, ‘발신자명(성별/연령/관계/신분/지역)→수신자명(성별/연령/관계/신분/지역)’은 국어사의 문헌자료와 확연히 구분되는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사회언어학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사용되는 요인들이다.

‘게서’와 ‘잡습다’ 항목을 예로 들어 용례 부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아직 인간의 많은 자료를 확보한 것이 아니므로, 제시된 용례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용례의 형식을 보이기 위하여 몇몇 용례만을 선취한 것이므로 추후에 작성될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 사전’의 해당 용례와는 달라질 수 있다. 용례가 작성될 형식을 살펴본다.

10) ‘게서’의 용례 제시

【게서는】 초복 경가의 문포 두엇 필을 어더스오니 엇지 흐야 입스오면 죠홀고 {게서는} 엷고 도라 의논홀 길 엷스오니 엇지면 죠홀지 답” 혼 일 만스오니 민망흐옵 <추사언간-02/1818/秋史金正禧(양반/남/33세/남편)→禮安李氏

(여/아내) > 경향의셔들 대되 일양 편안호읍 강동은 녀름을 엇지 낫습 종 〃
 녀너뿐이오며 {계셔는} 본병환이나 즈로 나지 아니 호야 겨시옵 <추사언간
 -24/1841/秋史金正喜(양반/남/56세/남편)→禮安李氏(여/아내)> 【계셔를】
 안사둔겨오셔 계시면 이런 말슴을 호시려마는 고 〃 히 원통 〃 호읍고 {계셔를
 뉘 호야달의 보을 거술 언제 보을지 안면을 이즈을 듯야심회 덩치 못호겟습
 <송병필가-54/1878/송병필(양반/남/43세/남편/충청도 영동)→아내> 【계셔
 띠】 집안 일호야즉금은 더고나 {계셔띠} 다 달여시니 응당 그런 도리는 알으
 시려니와 동 〃 혼 밍음은 별노 간절호읍 <추사언간-24/1840/秋史金正喜(양반
 /남/55세/남편)→禮安李氏(여/아내)>

11) ‘잡습다’의 용례 제시

【잡습계】 수리계에 포육호고 헤여 뜬 후에 스프날 제예 뵈 것 위호고 그
 나른 거스란 장모의 {잡습계} 호소 <진주하씨-71/17세기초/곽주(양반/남/41
 세/남편/경상도 현풍)→진주하씨(여/아내)> 【잡습기의】 반찬이 사려 호여
 도 아므 것도 살 거시 업고 {잡습기의} 민망호니 아므 거시나 보내여라 <선찰
 언간-9-59/17세기후반/안동김씨(여/어머니)→송상기(양반/남/48세/아들/충
 청도 대전)> 【잡습계】 어마님의 {잡습계} 쇼쥬 호 병만 호여 보내면 죽라
 핍혀 사름 브리거든 명현이를 브디 보내여라 <송준길가-18/17세기중기/백천
 조씨(양반/여/어머니)→송병하(양반/남/아들)>

5. 결론

언간 어휘 사전의 제작에 있어서, 기존의 고어사전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일
 상생활의 다양한 어휘를 담고 있는 언간 본연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는 어휘
 사전 제작의 의의와 과제를 밝히면서 현대 국어사전과 연계성을 높여 사용자
 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점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고어사전류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 기존의 고어사
 전류들은 인간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기초적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언해 위주의 간본 자료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언간 속에 나타
 나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어휘를 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간략한 뜻풀이로는
 언간에 나타난 어휘의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표제어의 뜻풀이를
 현대국어의 관련 어휘를 제시하고 있어, 고어(古語) 어휘의 의미를 알기 위해

서 현대 국어사전을 다시 펼쳐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외에도 용례는 대략 시기적 순서에 따라 배열될 뿐 어떤 원칙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현대국어의 음운론적 정보, 형태론적 정보나 통사론적 정보, 의미론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용례의 선정과 배열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의 고어사전류가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앤, 즉 사전의 성격과 체제가 다른 형태의 사전이 편찬될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수의 연간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지만, 이 자료가 당시의 언어생활을 전부 제시한 것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연간 자료가 16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공시적 어휘를 대상으로 하는 현대 국어사전처럼 일반적인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것도 수월한 것일 공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어사전류처럼 현대 국어사전의 보충을 위한 사전 편찬이 아니라, 당시의 언어생활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위 ‘일반 옛말사전’의 편찬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우리의 옛말로 작성된 문헌을 읽을 수 있는 도구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모든 국어사 자료를 살펴본 것은 아니다. 연간을 대상으로 하여 어휘 사전의 제작을 살펴본 것이므로, 다양한 종류의 국어사 자료를 동시에 이용할 때 생기는 문제점 등은 전혀 살펴보지 못하였다.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국어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전 편찬 작업, 즉 표제어 선정과 용례 작성 등의 작업을 실행한다면 새로운, 그리고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일근(1986), 『增訂 諺簡의 研究』,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주필(1993), 「晉州河氏 墓 出土 한글 筆寫 資料의 表記와 音韻現象」, 『震檀學報』 75, 진단학회.
- 김진해(2008), 「활자본 고소설 말뭉치 구축의 국어정보학적 의의」, 『국어국문학』 제149호, 국어국문학회, pp.69~107.
- 남기심·고석주(2003), 「국내 사전 편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전학』 제1호, 한국사전학회, pp.9~29.
- 남길임(2005), 「말뭉치 기반 사전 편찬의 동향과 지향 방향 -최근 30년간의 사전편찬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제16호, 한말연구학회, pp.75~98.
- 박재연(2001), 『고어스던』,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 백두현(1997b), 「17세기초의 한글 편지에 나타난 생활상」, 『문헌과해석』 1, 태학사.
- 백두현(2003), 『현풍곽씨언간 註解』, 태학사.
- 안귀남(1996), 「諺簡의 敬語法 研究 - 16~20세기 諺簡 資料를 중심으로 -」,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래호(2004), 「宋奎濂家 典籍 『先札』 所載 諺簡에 대하여」, 『語文研究』 123, 韓國語文教育研究會.
- 이병근(1990), 「사전 및 사전학」,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이상호(2003), 「국어생활사의 관점에서 본 언간의 특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전경 외(2006), 「구결사전 편찬에 대하여」, 『한국사전학』 제7호, 한국사전학회, pp.217~243.
- 李賢熙(2005), 「15세기 국어 동사 ‘너지다’ 표제항의 용례 배열」, 『한국사전학』 제5호, 한국사전학회, pp.57~77.
- 조항범(1998), 『註解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 최경봉(2008), 「특수사전 편찬의 현황과 과제」, 『우리어문연구』 30집, 우리어문학회, pp.59~8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17세기 국어사전』, 태학사.
- 한영균(2006), 「『표준국어대사전』의 用例에 대한 辭典學的 檢討-用言의 경우」, 『국어학』 제48집, 국어학회, pp.289~312.
- 한용운(2007), 「남과 북의 언어 통일을 지향하는 사전 편찬 방안」, 『국학연구』 제10집, 한국국학진흥원, pp.315~343.
- 홍종선(2008),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1)」, 『우리어문연구』 30집, 우리어문학회, pp.117~143.
- 황문환(2002a), 『16, 17世紀 諺簡의 相對敬語法』, 國語學叢書 35, 國語學會, 太學社.
- 황문환(2002b), 「조선시대 인간과 국어생활」, 『새국어생활』 12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pp.133~145.
- 황문환(2005), 「조선시대 諺簡 資料의 연구 현황과 전망」, 『語文研究』 122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국문초록】

언간은 경어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거나 대부분 한문 원본을 번역한 언해본과는 달리 자연스러운 국어 문장이 나타난다거나 일상 어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인하여 국어사의 중요한 자료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어로 된 난해한 어구나 구절이 많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더욱이 기존의 고어사전은 기초적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의 고어사전류가 언해 위주의 간본 자료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간략한 뜻풀이만으로는 언간에 사용된 어휘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고어사전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어휘를 담고 있는 언간 본연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는 어휘 사전 제작의 의의와 과제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현대 국어사전과 연계성을 높여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고어사전류가 가지는 문제점, 즉 자료적 성격이 다른 사전이 편철될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기존의 고어사전류처럼 현대 국어사전의 보충을 위한 사전 편찬이 아니라, 당시의 언어생활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위 '일반 옛말사전'의 편찬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우리의 옛말로 작성된 문헌을 읽을 수 있는 도구서가 될 것이다.

주제어: 조선시대, 한글편지, 언간, 사전, 고어사전, 체재, 표제어, 뜻풀이, 용례, 일상생활

【Abstracts】

Meaning and Assignment of Dictionary of Archaic Words

- Focused on the system of dictionary of letters written
by pure Korean -

Shin, Seong – cheol

Letters written by pure Korean are treated to be an important data in history of Korean language since they explained honorific expressions systematically, used natural sentences in Korean language, differing from Eonhaebon (books in Korean translation) translating the original copy of Chinese characters for the most part, and reflected daily words. However, they still have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grasp their contents in a proper way since they have difficult phrases and paragraphs written by archaic words.

There are cases that the existing dictionaries of archaic words don't offer even basic information in a proper way. For, the existing dictionaries of archaic words were made on the basis of data of printed books based on Korean translation and it is not easy to find meanings of words in letters written by pure Korean with simple explanations about meaning. Therefore, we shall review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existing dictionaries of archaic words and find meaning and assignment to manufacture a dictionary to express the original features of letters written by pure Korean

including diverse words in daily life in a proper way. And we shall find how to raise users' understanding by raising connectivity with modern Korean dictionary.

The study examined problems with the existing dictionary of archaic words, namely the possibility that dictionaries with different features of data would be compiled. It is necessary to compile 'general dictionary of archaic words' to offer information throughout language life at that time, not to compile a dictionary to supplement modern Korean dictionary. At this time, it will be a dictionary to help general people, as well as experts, to read literature written by Korean archaic words.

Key words: the Joseon Dynasty, letter written in Korean language, letter written by pure Korea, dictionary, dictionary of archaic words, system, headword, explanation about meaning, example, daily life

이 논문은 2009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1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0년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